

수의사 고객과의 대화

장칠봉 (재미한인수의사)



동물들은 사람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수의사들은 동물과 말이 통하지 않기에 그들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환자의 불평도 이해 못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수의사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란 질문에 당황하게 된다.

동물환자의 상태와 병력을 말해 줄 수 있는 이는 동물의 보호자인 그들 주인이다. 수의사들은 그들 주인을 고객이라 부른다.

고객이 동물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 또는 고객의 입장만 변명하는 경우, 수의사와의 대화는 엉뚱하게 된다.

미국의 한인들은 예전보다 개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것 같다.

25년전 한인타운 근교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3년 근무하는 동안, 치료하고자 동물병원을 찾아

온 한인인 여성 탈렌트 장씨 뿐이었다. 한인이 애완동물과 더불어 살게된 세월이 짧아서 그런지, 애완동물을 그냥 예쁘다, 귀엽다로만 여길 뿐 동물도 아파서 병들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다란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적잖은 한인들은 개의 병이 당뇨병이다, 암이다, 또는 디스크 탈구다라고 진단하면 개도 이런 질병이 있는지 몰랐다고 깜짝 놀라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수의사에게 하는 질문조차 의사가 쉽게 대답할 성질이 못된다.

“개가 며칠째 밥을 먹지 않는데 왜지요?”라 든가, 아예 자가진단까지 한 후 “개가 갑자기 다리를 쥘뚝이니 관절염같다. 타이네놀을 몇알 먹여야 하는지요?” 같은 물음이다. (타이네놀은 개에게 처방하는 진통제가 아니다).

미주 중앙일보(9월20일) 기사에 의하면 ‘파보 바이러스’ 질병이 널리 번져 최근 개를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하고 있다.

파보 바이러스 감염으로 안락사를 요구하게 된 어떤 고객과의 대화를 엮어 본다.

생후 6개월된 개를 데리고 p씨가 병원을 찾았다. 개는 예방주사를 접종하지 않았고, 며칠전 부터 밥도 먹지 않고 설사와 구토를 했다.

파보 바이러스 항원 테스트에 양성반응이 나왔다.

“예방주사를 맞았다면 이 병은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나는 주인의 무관심을 책해 보았다.

“아 글썄, 이 개는 주사맞는 것을 싫어 합니다. 싫다는 것을 할 수 없고”, 예방주사 미접종도 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p씨가 답했다.

“파보 바이러스 질환은 100%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을 못하겠다란 말은 가망이 없다란 얘기 아닌가요?”

“가망이 없다란 얘기는 아니지요, 치료하면 반 이상은 생존합니다”

입원 치료비가 얼마라고 말해주자 p씨는 “보장

하지 못할 치료면 차라리...”

나는 ‘차라리’란 말을 안 들은 척 했다.


P씨도 안락사 하고자 방문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주인이 원하지 않지만 수의사 권유에 의해 안락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글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였다.

“이 개는 나의 식구요. 그리고 나는 동물애호운동가요. 낫는다란 보장만 하면 몇만불이라도 내겠소. 그렇지 않다면 일초의 고통도 주기 싫소”

“그러니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겠네요” 내가 대꾸했다.

“치료말고 다른 방법, 안락사합시다” 결국 그는 내가 안락사를 권하지 않을 것 같아 먼저 안락사를 주문했다.

예방주사 미접종으로 인해 동물이 병들어 안락사하게 되면 이를 ‘수의사탓’으로 돌리는 ‘동물애호가’도 적잖다. 

※ 본 원고는 미주중앙일보(LA) 9월 25일자 오피니온 칼럼에 게재된 장철봉회원의 글입니다